

절하다. 생활 없는 신자, 생활 없는 목회자, 생활 없는 교회 제직, 생활 없는 보수주의, 생활 없는 칼빈주의, 생활 없는 개혁주의가 되어 있거나 아니한지, 만일 그렇다면 거기에는 썩은 냄새가 날 수밖에 없다.

오, 주여! 나와 우리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불 붙듯이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쏟아 바쳐 뼈가 녹는 회개를 하자! 기도의 지성소에 깊이 깊이 파고 들어가자! 기도와 회개 속에서 우러나오는 새로운 영적 능력을 받아 오늘 이 시대에 세계 요한적인 생활로써 이 시대를 비추이는 빛이 되자. 마태복음 5:16에는 “너희 빛을 사람앞에 비추이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였다. 나를 광야 깊은 골짜기에, 악대 털옷과 메뚜기와 석청 속에 자신을 집어 넣어 자신을 끊임없이 죽이고 연마하고 끊임없이 무장하여 오늘의 교계에 새로운 영적 바람을, 영적 생기를 불어 넣어 내일의 개혁주의, 한국 교회와 세계를 건설하여 하나님의 재단 앞에 깨끗하게 바치자!

## 선교 2세기를 맞는 한국 교회의 회고와 전망

한 병 옥

(부산 피정 제일교회 담임목사)

선교 2세기를 맞이하는 한국 교회의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생각하며 앞으로의 방향을 위한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제 갓 100주년을 넘긴 연륜이란 역사의 측면에서는 긴 것이 아니다. 기독교는 2천년이라는 장구한 역사를 가지는 데 반하여 한국 교회 역사는 백 년 남짓하다. 세계 선교사적으로 관조할 때도 한국은 중국, 일본보다도 늦게 복음을 받았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초대 교회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명하신 그 명령따라 전세계 교회는 꾸준히 복음을 전해 왔다. 5대양 6대주 가운데 아시아가 가장 늦게 복음을 받았다. 그것은 사도행전

16:6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리고 7절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라고 기록하고 있다. 성령이 허락하지 않은 이유를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시아 지역은 불교와 유교와 우상 종교가 많고, 쇠국 정책을 썼다.

둘째, 지리적인 여건상 세계의 지붕인 에베레스트 산과 티벳 고원이 가로막고 있어 육로로는 너무 험하였다.

셋째, 경제적인 측면에서, 경제적으로 비교적 부요한 그들에게 먼저 전하여 믿게 한 후에 막대한 선교비를 들여 가난한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게 했다.

동시에 창세기 9:26, 27에 나오는 노아의 기도에서도 이유를 찾을 수 있다.

## 1. 기독교 전래 역사

예수님 한 분으로 시작하여 12제자, 70인 전도대, 박해로 인하여 신자 모두가 전도대가 되었다. 사도행전 8:1에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라고 기록되었다. 기독교가 급속히 발전한 요인 중의 하나가 핍박이다. 세계 역사에서 기독교만큼 수난을 당한 단체는 찾아보기 힘들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일본 사람들이 36년간 통치하면서 정치·경제·교육·문화를 장악했다. 심지어 창씨개명까지 했다. 그리고 교회까지 지배하려고 획책했지만 불가능했다. 다른 것은 다 지배했으나 교회만은 지배할 수 없었다. 이처럼 교회는 여느 집단과 비교할 수 없도록 강

하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와해시키려고 피한 핍박 세력은 스테반 한 사람만 사형시키면 성사될 줄 알았지만 오히려 교회가 불같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곳에서 박해를 하면 다른 동네로 피해 가서 거기서 전도하여 요원의 불길처럼 이스라엘 전국과 심지어 다른 나라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다. 성경 역사상 가장 먼저 공격으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는 안디옥 교회였다. 사도행전 13:1-4에서 소아시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 파송한 것이 최초의 공식적인 선교사였다. 그리하여 소아시아와 유럽 지역은 초기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인 바울 사도에 의해 당시 세계 제국인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다. 그 후 기독교가 로마를 중심으로 부흥되니 또 박해가 일어났다. 로마에서 일어난 10대 박해이다. A.D. 54년 네로 황제 때부터 시작해서 305년까지 250년간 행해졌다.

로마의 박해의 원인을 보면 (1) 종교상의 차이 (2) 비밀 결사를 하는 단체로 오인 (3) 사회 생활의 부조화 (이교도와) (4) 로마황제 숭배반대 (반국가) (5) 사상적 부조화 (도성인신, 부활, 그리스도를 전하니) 등이다. 박해의 방법은 화형, 재산 몰수, 추방, 고문, 성경 불태움으로 극도에 이르렀다. 이런 극심한 박해 때문에 기독교는 지하로 들어갔다. 그러나 313년 콘스탄틴 대황제가 전쟁 중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남을 보고 믿기 시작해 누구라도 기독교를 믿어도 좋다고 자유를 허용하는 밀라노 칙령을 반포하였다. 이때부터 기독교의 선교는 더욱 활발해졌다.

불란서는 3세기 초에 이레네오와 다른 신자들에 의해서 전파되었으며 독일은 영국 선교사가 윌리브르드 (657~739년)와 쾰니페스 (680~755년)가 선교하였다. 20년 동안 10만 명에게 세례를 주었다. 8세기 초에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 스칸디나비아

아의 동구권의 나라들이 차올만 대제에 의하여 복음이 들어갔고 러시아(소련)에는 최후의 군주인 루릭의 아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급속히 러시아에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후 약 1천 년 동안 기독교는 외세 확장 등으로 황금기를 맞이하면서도 질적으로 깊은 타락과 부패의 늪에 빠져들게 된다. 이 부패와 타락의 극치는 교회의 면죄부 판매였다. 여기서 1507년 10월 31일 독일에서 Martin Luther는 95개 조항의 항의문으로 종교 개혁의 횃불을 높이 쳐 들었던 것이다. 이 종교개혁의 신앙이 영국에서 청교도들에게 전수되었는데 다시 미국으로 건너갔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것은 정식으로 개신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일한 연대인 1884년이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외국에 내왕하면서 믿은 것은 그보다도 훨씬 이른다. 1832년 화란 선교사 구출라프가 40일 동안 충청도 홍주 고금도와 금강 입구에 상륙하여 전도한 일이 있었으며, 1866년 8월에 미국 무역선을 타고 평양 대동강에 내린 스코틀랜드인 토마스가 영국성서공회의 한문 성경을 많이 가져와서 전도하다가 순교하였다. 1876년 한국인들이 서간도로 이주했는데 그곳에서 중국인들에게 선교하고 있던 영국 선교사에 의해 전도받았고 1881년 마 근태 선교사는 한국 사람 85명에게 세례를 베풀었다고 한다.

## 2. 한국 교회의 부흥과 과제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 자유와 육적 불행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땅에 오셨다(눅 4:18). 한국 교회는 의사인 알렌 선교사가 1884년 10월 20일에 한국에 입국함으로써 선교의 문이 공식적으로 열리는 계기가 되었다. 알렌 선교사는 고종 황제의 황실 의사가 되었다. 1885년 6월에 입국한 헤론 의사 부부가 병원을 설립하여 선교하였고 에

비슨과 게일 선교사가 서울을 중심으로 학교 설립을 통한 교육, 전도, 의료 사업에 헌신했다. 마포삼열, 배위량 선교사가 평양을 중심으로 교회와 학교 설립(1893년)을 추진하였다.

### (1) 한국의 사회 복지 기관

한국에 545개가 있다. 이 중 기독교 단체나 기독교인들이 경영하는 것은 455개로 84%나 된다. <표 참조>

내역	정부	기독교
모자보호기관	0	33(전체)
노인복지	20	38
영·육아기관		273
장애자복지기관		80
청소년기관		6
부녀복지기관	2	9
가족복지기관	3	5
지역사회복지기관		11

① 선명회: 1953년~1979년까지 185억원을 투자했다. 시설 아동복지 및 가정에 10,440명 지원, 의료 혜택 599,057명, 구락 사업 113,389명, 장학·문화·교아 13,500명을 지원하였다.

② 한국 어린이 재단 산하 육아원 어린이 집, 특수 시설의 28%가 크리스찬이 경영하고 있다.

③ 새마을 운동이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한국의 새마을 지도자 70%가 기독교인이다. “오른 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 은밀히 봉사하는 익명의 봉사 단체, 개인이 많다.

## (2) 한국의 교육 기관(정규교육)

① 기독교 단체가 운영하는 학교 256개

국민학교 6개

중·고등학교 233개

대학교 17개

② 기독교인 개인이 설립 운영하는 학교는 한양대학, 명지대학, 은광여자중·고등학교 등 사립학교 33%에 해당한다.

③ 성경구락부 63개 : YWCA도 60여년 전부터 가천 공민학교를 세워 부녀자 1,848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④ 한국 문화의 기초는 교회가 닦았다.

· 언문이라 뽕개쳐진 언어인 한글을 성경 인쇄로 보급

· 일제 시대 불사용 억압을 뿌리치고 교회에서 교육했다.

⑤ 1885년 8월 아펜셀러 목사가 배재학당을 설립, 최초의 현대식 교육 기관을 시작했다. 2명의 학생으로 시작, 배재학당이란 이름은 고종 황제가 하사했다.

⑥ 1885년 언더우드는 연세대학 전신인 광혜원을 세웠고 1914년에 경신학교를 세웠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이 민족에게 새 학문을 가져와서 민족 계몽의 선구자 역할을 감당하였다.

## (3) 종합병원 41개가 기독교인의 병원이다

1884년 알렌 선교사로 시작된 병원은 41개 병원 중 22개는 기독교 단체가, 19개는 기독교 신자가 운영하고 있다.

## (4) 교회의 부흥과 과제

한국 교회는 세계 교회로부터 '새벽 기도의 나라' '기적의 부흥을

이룩한 나라'라고 찬사를 받고 있다. 현재 교회수가 2만 교회를 능가한다. 교인수는 1천만에 가깝다. 83년도 성경 출판 부수는 전도용을 포함한 성경 인쇄가 4천1백13만39부 인쇄 보급되었다. 성경전서 1백30만2천6백50부와 신약성경 80만5천2백10부를 인쇄 69개국에 수출했다.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1887년부터 한글 성경이 나오기 시작하여 한글을 경시하던 사람들에게 그 인식을 완전히 바꿔 놓았으며 문맹자에게 한글을 보급하는 데 큰 공헌을 했다.

춘원 이 광수는 「예수교가 조선에 준 은혜」라는 책에 “조선 글과 조선 말이 진정한 의미로 고상한 사상을 담는 그릇이 됨은 성경의 번역이 시론일 것이요 만일 후일에 조선 문학이 건설된다면 그 문학사의 제일면에는 신·구약의 번역이 기록될 것이다”라고 했다. 이처럼 한국 교회 초창기에는 질과 양이 균형있게 성장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신학의 혼란, 교권주의의 발흥, 명예주의의 봉기, 사소한 지역 감정, 이권개입 때문에 분열에 분열을 거듭하여 지금 94개로 분열되어 있다. 그리고 교회는 극도의 몰락주의화 대형화되고 있다. 또 교회당 미화에 경쟁적으로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오늘의 문제는 목회자에게 있어서 사명 의식의 결여, 성실한 목회의 부재, 직업적인 목회자, 명예를 탐하는 자, 물질을 탐하는 자, 안일한 목회에 치중하는 것들이다. 아직도 전국 교회 50%가 목사가 없다. 목사가 농촌교회를 떠난 이유는 ①경제난(47.8%) ②자녀 교육 문제(32%)라고 한다. 진정한 주의 일군이려면 어떠한 이유로도 복음 전파를 대신할 수 없다.

또한 교역자의 수준저하는 서서히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농어촌에는 교역자가 대부분이 전도사, 전도인이고, 이들 중 성경학교 출신이 19.5%, 신학생이 18.4%, 전도사 27.9%(고졸 15.2%, 중졸 28.2%, 국졸 9.7%, 무학)이다.

미자립 교회에 대한 무관심은 교회 내에 심각한 갈등 요인이 될 여

지를 가지고 있다. 즉 월사례비 20만원 이하가 6.8%, 10만원 이하가 37.9%, 5만원 이하가 37.9%, 무보수가 17.4%에 이른다. 도시 교회는 전적으로 농어촌 미자립 교회를 책임지고 보조하여야 한다. 기본 사상에만 치우치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자는 참으로 귀하다. 교회 권징이 마비되고 있다.

한국 교회가 과거에 놀라운 발전과 부흥을 가져온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이 국가의 정치·경제·교육·사회사업·문화 등 여러 분야에 영향을 끼쳐 여느 종교가 추종할 수 없는 큰 일을 하여왔다. 3.1 운동 때 33인의 민족 대표 중 기독교인이 16명인데, 그중 목사가 11명이었다(길 선주, 김 병조, 박 동완, 신 석구, 신 홍식, 양 순백, 오 화영, 유 오대, 이 필주, 정 춘수, 최 성묘), 장로 2명(이 승훈, 이 명룡), 전도사 1명(김 창준), YMCA 간사(박 회도), 이 갑성은 세브란스 병원 약사였다. 3.1운동 당시 거사 지역이 311지역이었는데 기독교 단독 거사 지역이 25%, 천도교와 공동 거사 13%, 그러므로 38%를 기독교인이 차지한 것이다. 체포된 사람의 21%가 기독교인이었는데 이는 당시 전인구의 2%에 불과했던 형편에 비추어 볼 때 30% 이상의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이로 보아 기독교가 진정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도 남는다. 그 당시 천주교는 비협조적이었다.

근대 한국 역사의 불운한 암흑기에 민족 정신을 말살하려 했을 때 기독교는 민족 정기를 이어왔으며, 해방 후 무신론 공산주의자들이 민심을 혼란케 할 때 자유민주주의를 고수하는 데 큰 방파제 역할을 해왔던 것이다.

### 3. 내일의 한국 교회를 위하여

오늘에 와서 한국 교회는 어떠한가? 교회는 세속화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개혁되어야 한다. 성경 역사나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교회도 역시 사람들이 모인 지라 한때는 신앙 생활이 열렬하고 순전하고 온전한 신앙을 유지하다가 점점 그 신앙들이 약해지고 세속화되어 신앙의 초점이 흐려지는 때가 있었다. 그럴 때마다 교회는 그대로 부패하지 않고 '개혁'을 했던 것이다. 거슬러 보면 노아 시대나 룻의 시대를 심판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개혁하신 것이었다. 불의하고 타락해진 한 시대를 멸절하시고 의가 보존되도록 한 시대를 개혁하신 것이다. (창 6:7)

또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 나라에 침입을 당하게 하시고 70년이란 긴 세월 동안 포로로 수난을 당하게 하셨다. 이것도 신앙이 흐려진 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개혁하신 것이다.

창세기 35:1 이하에 보면 야곱의 한 가족 전체의 신앙 개혁을 요구하셨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 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앙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창 35:2). 하나님보다 더 위하는 것은 우상으로 간주되는데 자기 본위의 생활, 말씀을 거역한 생활, 불의한 모든 생활을 개혁하라는 것이다.

느헤미야 시대에 전국각적인 종교개혁이 있었다. 느헤미야는 정치적으로 개혁하였고, 에스라는 종교적인 개혁을 부르짖었다. 개혁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우상을 버릴 것
- 이방인과 절교할 것 (통혼금지)
- 금식하며 회개의 기간을 정함
-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 - 말씀 중심
- 성일을 지킴
- 예루살렘에 상인의 출입을 금함
- 십일조를 하나님께 드림

최고의 개혁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아무도 유대교의 전통과 권위와 의식에 도전할 수 없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의 잘못을 낱알이 개선하게 한 것이다. 종교는 영적 생명을 잃게 되면 전통과 권위와 의식에 치우치게 되는 것이다.

한국 교회 100년 역사 가운데 세 번의 내적 개혁이 있었다.

첫째가 1906년 늦여름부터 평양을 중심으로 기도 운동이 1907년 1월 14일에 성령강림일을 맞았다. 남녀노소, 유무식자, 모든 교역자, 선교사, 신·구교 신자 할것없이 회개했다. 낙심자는 재결심하고, 신자는 더 큰 신앙으로 서로 화목하고, 평양 일대는 학교가 2주간 휴학을 하였고 일반 사무도 중지했다. 상가는 철시하고 기도에만 열중하였다. 이 운동의 열기는 한국뿐 아니라 만주 봉천과 중국 도시 교회에까지 그 영향이 미치고 전세계 교회에 충격을 주었다.

두 번째는 1945년 해방 후 출옥 성도들을 중심한 회개 운동, 교회 개혁을 시도했으나 오히려 일본 신사에 참배한 자의 수가 절대다수여서 소외를 당했을 뿐 아니라 나중에는 제명을 당하는 비극이 일어났다. 진리를 외치는 자들을 제명하고서는 제 27회 총회시 신사 참배를 우상 숭배가 아니고 국가 의식이라고 가결한 것을 해방 후 제 32회 총회에서 '취소' 결정했다. 그러나 제 39회 총회는 다시 신사 참배 '취소 성명'을 내었다. 이는 형식적인 취소는 했으나 양심적인 개혁은 아니었다.

세 번째는 1950년 6월 25일 후에 부산까지 피난와서 부산 춘량교회(한 상동 목사 시무)에 모여 회개를 하며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는 개혁이 일어났던 것이다. 이 회개 운동은 교회뿐 아니라 국가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것이다. 박 윤선 박사는 <파수군> 35호지에 "이렇게 교역자들이 회개한 뒤에 UN군은 승리하여 공산군을 쫓아 이북으로 올라가도록 하사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을 찬송하고 회개한 뒤에 즉시 이어서 승리한 것은 우연히 된 일이 아니고 하

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라고 하였다. 김 진서 목사도 목사들이 고래배(고신측) 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고 요나를 비유해서 간증하였다.

그후로 한국 교회는 60년대와 70년대에 이르러 급속도로 성장했다. 이런 성장의 외적 요인은 한국의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함으로 많은 인구의 도시 집중이 도시의 대형화를 부채질하였고 그에 따라 교회 설립이 급증하게 되었다. 지금도 성장의 속도를 늦추어서는 안된다. 계속적으로 질적 성장과 양적 성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빌 3:12)

한국 교회는 현재로서 만족할 수 없다. 전국민의 복음화를 위해서 힘쓰고 전도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귀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건전한 말씀 운동, 뜨거운 기도 운동, 충만한 성령 운동, 국내 전도의 재정립, 교단적인 국외 선교 전략, 수도권을 복음으로 정복, 교역자 상호간의 질서 확립과 분파·분쟁을 지양하는 교단 화합이 요청된다. 가장 중요한 것이 교단 화합이다. 명예, 교권, 물량주의를 탈피해야 한다. 무분별한 대책없는 개척 난립을 재고해야 한다. 특히 지역 사회에서 소외된 자를 위해 교회는 특별한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이다.